AUG 9 1937

【一】 第五千八百三十二號 (昭和七年十一月三日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月曜日) 昭和十二年八月九日 (第二版) (日刊)

朝鮮日報

夕刊 八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刊一圓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社說

造言飛語의 嚴重取締

陸刑第九十九條의 發動

一

北支事變勃發以來로 當局으로부터 最大關心을 가지고 그 豫防及取締에 努力해 온것은 流言蜚語다。吾人은 일즉도 本欄을 通하야 數次 論한바 잇거니와 流言蜚語는 一種 精神上의 傳染病이다。그病源은 或은 일부러 國家社會의 安寧秩序를 紊亂하려는者의 作意的"데마"도 잇을것이며、或은 好奇的說明慾에 끌리어서 無心히 放說한데 不過한 不作意的"데마"도 잇을것이나 病源의 如何를 勿論하고 그結果가 一般民心을 不安恐怖에 誘導하야 (一)被訴된 各個人의 私生活을 混亂에 誘致하며 이에 따라서 (二)國家社會의 安寧秩序를 紊亂케 한다는 一點에 잇서서는 共通한바가 잇다。國家를 한 生理的有機體에 比해 말한다면 流言蜚語는 그生理的有機體를 內部로부터 腐爛시키는 惡性바레리아에 比할수가 잇다。그러기에 國家는 그 未然防止及 取締에 全力을 다하는것이다。

二

流言蜚語는 그字意에 表現된 바와가치 戰時又는 大事變을 끼고 이러나는 事實無根의 論理的 虛說이다。論理的虛說이기때문에 最初의 發言者는 虛說로 알면서 流布하지마는 第二人부터는 有根의 實說로 確信하고 或은不安을 느끼며、或은 恐怖를 느끼고 妄動을 開始하게 되는것이다。또한 그論理는 戰時又는事變을 끼고 나오는 論理이기때문에 一言의 說明을 要치 안코도 萬人이면 萬人이 다 미들수 잇도록 되여잇다는데 流言蜚語의 特徵이 잇는것이다。流言蜚語에는 이러한 特徵이 잇기때문에 一國一社會의 文化程度의 高低如何에 不拘하고 어느社會에나 流言蜚語는 가튼程度로 流布될수 잇는것이며、또한 한社會內에서는 無識한 階級에만 流布되는것이아니라、有識한 階級에도 流布될수잇는것이다。그뿐아니라、有識階級에 드는 사람일사록 流言蜚語에 한層더 걸릴 素質을 豐富히 가젓다고 할것이다。그러므로 萬若 어떤 사람이 잇서서 나는 知識階級이니까 流言蜚語의 取締에 걸리지 안흐리라하고 밋는다고하면 그는 愚者라고할것이다。

三

何如間、流言蜚語는 이러툿 莫大한 社會的國家的害毒이 伴하는 것임으로 當局은 極히 그取締를 嚴히 하는바 最近朝鮮憲兵隊司令部에서는 從來보다 그取締方針을 更一層 嚴酷히 하야 取締에 걸리는者만 잇거든 이제부터는 陸軍刑法 第九十九條를 發動시키어 斷乎한 處罰을 할 旨를 發布햇다。該條文은「戰時又는 事變에 際하야 軍事에 關하야 造言飛語를 한者는 三年以下의 禁錮에 處함」이라는 內容을 가진것으로서 말 한마디가 빗나가면 禁錮三年이라는 가볍지아니한 刑罰이 도라올것을 覺悟해야 된다。그리고 이때는 非常時인 同時에 戰時이므로 政治、財政、經濟 어느것에 關한 말이라도 다 軍事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것이기때문에 發言者自身은 軍事에 關한것이 아닌줄 생각하고 發言한 말도 이 條文所謂「軍事에 關하야」에 抵觸되기 쉽다는 一點은 特히 注意할바이다。

漢口의日本租界를 支那當局에保管委託

全居留民五百名을七日午後 岳陽丸으로撤退完了

【上海七日發同盟】漢口로부터 當地 官邊에의 確報에依하면 漢口撤退最後의 居留民五百名은 岳陽丸으로 軍艦○○에 護衛되여 七日午後五時 漢口出帆 上海로向하야 下江의 途에 就하얏다 이로써 我 漢口居留民은 全部 撤退하얏다 그런데 松平總領事代理以下總領事館員 第○○隊 及○○隊는 支那側에 對한 租界 其他의 保管委託 事務終了를 기다려서 下江할 豫定이다

【漢口七日發同盟】在留邦人全部의 撤退를 본 漢口日本租界는 漢口에서의 我國有財產과 公有財產을모다 支那側當局에 保管을委託할것으로 我居留民團倉庫에 모아둔 財產等과함께 支那側에 保管의責任을 委託하기로되엿다 따라서 松平總領事 代理以下館員은 아즉殘留하야 支那當局과 右保管委託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고잇다

八日開會國防會議

戰時體制具體化討議

【南京七日發同盟】今日國防會議第二日에서 決定된 戰時體制決議案은 中央地方各機關을 戰時配備下에 두는것으로 明八日繼續하야 開催될國防會議는 主로 戰時體制의 具體化에 對하야 討議할터이다 그리고 本案實施에 依하야 中央軍令機關의 組織機能은 顯著히 擴大强化될것이오 또陸海空軍總司令以下 各軍總司令 各路總指揮等은 戰時職制를 가추게되엿다

兩殿下御容態

公使館當局謹話

【海牙七日發同盟】海牙駐箚日本公使館當局은 秩父宮同妃兩殿下의 御容態에 對하야 七日삼가 左와如히말삼하얏다

兩殿下께서는 二日御同伴하시와 世界少年團大會에 臨御하시엿는데 其後輕微한 御感氣로 御靜養하시엿다 但殿下께서는 이미 御全快 妃殿下만 이아직 御離床하시게까지 御快癒되지못하시엇스나 數日中에는 御全快되실 御模樣이시다

龍口支那兵激增

【龍口七日發同盟】天津陷落以來山東省龍口의 支那兵은 激增하야 約三倍인 二千名에 達하엿고 兵器彈藥을 多數搬入하야 龍口碼頭에 塹壕를 構築하는 一方高射砲를 備置하고 夜間에는 消燈하고 午後十時以後에는 通行을 禁止하는等 防空體制를 取하고잇다 그리고 龍口郊外招遠珍珠近郊에 잇는 日本人五十名은 市內와의 電話連絡이 斷絕되여 不安은逐日 增加되므로 萬一을念慮하야 避難에備하고저 日本汽船一隻을交涉繫留케하엿다

閣僚會議開催

議會終了後도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北支事變의 推移에關하야 閣內의緊密한 連絡과 政府諸機關의 有機的活動을 期하기爲하야 議會中院內에서 隨時會合을 遂하여왓거니와 議會後에도 連日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閣僚會議를열고 午餐을함께하면서 情報交換을 遂하기로되엿다

貴衆兩院議員招待宴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一議會도 八日 거처엿서 閉院式을 擧行하엿슴으로 近衛首相은 恒例에依하야 閉院式終了後 正午부터 貴衆兩院議員 各省政府委員을首相官邸에 招致하고 病队中의近衛首相을 除한外 各閣僚가 出席하야 首相代身으로 廣田外相의 慰勞人事가잇고 懇談裡에午餐을함께하고 午後一時 散會하엿다

將兵慰問次

衆議院代表를派遣

【東京電話同盟】衆議院各派에서는 八日午後一時부터 院內에서各派交涉會를 開하고 北支事變에 活躍하는 將兵을 慰問키爲하야 衆議院 議員代表派遣에關하야協議하기로되엿다

英伊接近細目交涉

【倫敦六日發同盟】쳄벌린 뭇솔리니兩首相의 親書交換을 契機로 하야 倫敦羅馬兩首都에서 英伊接近의準備工作이 進行되고잇는데 九日부터 羅馬에서 兩國代表間에 細目交涉을 開始하기로 되엿다 英國으로부터 何人이 代表로 될지 不明이나 이든外相說도 一部에 傳하고잇다

入超依然繼續

七月末現在로七億三千萬圓

【東京電話同盟】對外貿易은 七月에 入해서도 依然入超를 繼續하야 七月末의 入超는 七億三千萬圓에 達하엿는데 今後時局에 鑑하야 軍需品의 輸入增大가 豫想되므로 大藏 商工兩省에서는 應急手段으로 急速히 輸入制限의 强化를 圖하게 되엿다 卽 我國財政現情으로보아 金現送에도 限度가잇슴으로 輸出能力과 金現送限度에서 大體輸入할수잇는 金額을 決定하야 緊急을要하는 物品부터 順次로 輸入을許可하고 其他에는 高度의制限을設하자고하는것이다 따라 爲先制限의 對象되리라고觀測되는것은 棉花及羊毛인데 商工省에서는 棉花는 上半期輸入은이미 一千萬擔을超過하엿고 羊毛輸入도 顯著히增加되엿슴으로 綿織物 毛織物輸出은 減退되고 棉花 羊毛의 스톡은 相當한量에 達하여잇는바 下半期에잇서 相當한 金額의 輸入制限을 加하드라도 支障업다고 보고 許可할境遇에도 製品의輸出을 主眼으로할 方針이다 그리고輸入制限結果로 誘起될 貿易業者와 生產業者와의 間의 摩擦調整에 對하야 貿易及 關係產業調整에 關한 法律의 施行을 急히하야 九月初에 實行할 豫定이다 一方近近貿易業者代表를 商工省에 招致하야 政府의 貿易政策實施에對하야 協議할터이다

明年度豫算總額 卅五億突破必至

其編成政策의前途가極注目

公債增發、消化가問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特別議會도 無事終了되엿슴으로 來週부터繼續하야 明年度豫算編成에 着手하기로되엿는데 事變發生前에이미 三十四億突破는 必至로觀測되든 明年度豫算은 事件發生으로 膨脹하야 今年度豫算에잇서서는 相當額으로서는 到底히 困難한바 今後事態의推移如何에 依해서는 一層膨脹되리라고 豫想되는 現狀임으로 이情勢로보면 明年度豫算總額은 적어도 三十五億을 突破할것은 必至인데 其編成政策의 前途는 자못 注目된다 豫算增額에 伴하야 公債增發도 또한 不可避인데 今後 財源關係를 中心으로 增稅計劃의 擴大、公債消化方策、金融統制貿易管理等 所謂準戰時體制에 順應할 財政政策이 모든 角度에서 考究되리라고 觀測된다

何應欽辭職은 戰時體制上一進展?

重要椅子準備를觀測

【上海七日發同盟】軍政部長何應欽의 辭職은 本日突然發表되여 南京內外各方面에 多大의 衝動을 주고잇는데 辭職의 直接原因이라고하는 軍官學校講堂에서의講演會에서는 裝備充實된 日本軍을 刺戟할 파如한 行動을하면 現在의 支那에잇서서 作戰上不利함으로 十分行動을 삼가하라 함이라한다 그리하야 何應欽의 이自重論이 支那將校團을 憤激식혓다고傳한다 그러나 一說에 依하면 蔣介石의 對日策에 對한 部內外의 猛烈한反對를 轉嫁키爲하야自進하야 責을負하고 軍政部長의職을 떠낫다고도한다 그리고 某方面의 消息通은如何한 事情이잇다해도 對日戰을 압헤두고 何應欽이 辭退한裡面에는 軍略家로서 支那唯一인何應欽을 時局收拾의 某種의重要椅子가 準備되여잇다고 觀測되며 何應欽의 辭任은 支那側의 戰時體制上의一進展으로 注目되고잇다 (寫眞은 何應欽)

世界週史

七十一議會閉會

第七十一議會는 七日로서 議事를 終了하고 八日貴族院에서 閉院式을 擧行할터이다 今回의 特別議會는 一週間의 短期間임에도 不拘하고 非常時局의 重大性을 反映하야 豫算全部를 一瀉千里로 議了하고 特히 追加豫算案과 特別稅法案等을 無修正通過식힌것과 北支事變에 關한決議案을 採決한것은 實로 事變下의 [illegible] 것이다

支那國防會議

北支事變에 對한 國民政府의 最高方針을 決定할 全國國防會議는 六日 南京에서 蔣介石主席下에 第一次會議를 開催하엿다 出席者는 蔣介石 何應欽 汪兆銘 程潛 中央軍將官 비롯하야 閻錫山 白崇禧 余漢謀 何成濬 朱紹良 熊式輝 其他 于學忠等인데 右會議結果「支那는 이에 最後의 準備에 서잇스므로 對日應戰은 不可避」라는데 意見一致되엿다한다 그러나 蔣介石은 끗내 一言半句도 發言치안코 終始緊張한 面貌로 一貫하엿다한다

漢口居留民撤退

漢口日本租界의 邦人居留民은 事變緊迫됨에따라 마침내 全部撤退키로 決定하고 七日午後 軍艦護衛下에 上海로 下江하엿다 그리고 當地總領事館員도 奧地로부터 撤退하여온 重慶 沙市 宜昌 長沙各領事館員과함께 殘務를 整理한後 九日岳陽丸으로 下江할터인데 日本租界의國有及 私有財產은 全部 支那當局에 保管을 委託하리라한다

何應欽辭任

軍政部長何應欽은 일즉辭表를 提出하엿든바 中央은 七日이를 受理하고 그後任에 軍政部次長陳誠을 軍政部長代理로 任命하엿다 何應欽의突然辭表를 提出하게된 動機는 梅津何應欽協定에 對한 責任追求인듯하나 一說에 依하면 軍略家로 支那唯一한 何應欽을 어떤 다른重要한 地位에안치기爲함이라 하는데 그의 進退는 非常한 注目을 惹起하는바잇다

天津治安維持會

天津治安維持會는 北平治安維持會成立에 뒤이어 發展解消하야 사라지지안코 一日市政府에서 成立을 告하엿다 同會는 二日부터 市政回復을 爲하야 活動을 開始할터인데 委員長에 高凌霨 委員에 [illegible] 九人이다。

戰死傷一千二百餘

陸軍省에 到達한 情報에 依하면 七月七日부터 八月三日正午까지의 我軍 戰死傷者는 合計一千二百三十三으로 戰死 三百六十四 戰傷 八百六十九라한다

訪滿經濟使節團

九月上旬大連에서 열릴 滿洲經濟聯絡會議를 機會로 朝鮮總督府에서는 朝滿貿易의 全面的促進에 關하야 根本的 檢討를 하기로 되엿섯는데 同會議에는 朝鮮側民間有力者도 相當히 多數出席 시키는同時에 이전부터 計畫中이던 滿洲國 訪問經濟使節團을 組織하야 이를派遣하되 [illegible] 商工課長外十數氏를 網羅하야 委員以外의 諸氏는 會議에 參列하고 會議後는 卽時 經濟使節團의 使命에 좇아가서 朝滿貿易振興의 立場으로 滿洲國 貿易 金融等 數班에 分하야 各其使命에 適應한 滿洲國現地를 視察하고 또滿洲國側 關係方面과 直接會見에 關하야 腹藏업는 意見交換을 行하야 朝滿貿易의 全面的促進에 資할터이다

支那를應援할

米國義勇兵數千名應募?

其中一千名飛行家도包含

UP通信社의報道

【桑港七日發同盟】故張作霖의 軍部顧問"리셀리"의抗日援助義勇軍募集報導는 자못注目되는데 好事氣質의米人中에는 자조話題를提供하야 如前히 黃色紙를 繁榮케하고잇다 七日에도"리"의 側近者의말이라하야 UP通信社의傳하는바에依하면「義勇兵希望者는 陸續不絕하야 主로 中、西部諸州失業在鄕軍人으로부터 應募가 잇섯는데 其中에는 一千餘名의 飛行家가 包含되여잇다한다 [illegible] 일리노이州카이로市에서는 [illegible] 義勇軍參加를 申請하엿고 또 칸사스시티、市俄古에서도 [illegible] 飛行隊員 四十人을 引率하고 義勇軍參加를 申請하엿다한다

對支義勇兵應募問題

定例會見에서再問題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失業軍人의 對支義勇兵應募問題는 七日午後、헐國務長官과 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서 再次問題되여 記者가 本問題에 對하야 日本政府로부터 應募禁止의 確言要求를 바덧는가 質問하엿든바 이에對하야 헐長官은 六日의 言明을 反復하야 左와如히 誠하엿다

一、本問題에對하여는 日本政府로부터 何等申請을 接하지못하엿다 그러나 外國義勇軍參加禁止에關한 法律은 現在日支紛爭에 關聯하야 發生할수잇는 如何한 事態에나 一律로 適用될것이다

閉院式擧行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一特別議會는 七日會期를完了하엿슴으로 皇室儀制令에 依하야 八日午前十一時貴族院에서 閉院式을 擧行하엿다

同日 天皇陛下께옵서는 親臨하옵시지안코 廣田外相以下各閣僚(近衛首相은身病으로不參) 松平、小山、佐佐木、金光各兩院正副議長以下 貴衆兩院議員 禮裝으로 參院하야 午前十時五十分 振鈴과함게 式場에 整列 正十一時廣田外相恭順히 玉座에向하야 最敬禮한後 川島書記官이捧한 勅語를 拜하고 玆에 勅命을 奉하야 閉院式 勅語를 奉讀하는 光榮을 입는다고 述한다음 諸員最敬禮裡에 松平議長 勅語書를 拜受하고 同○五分 式을 終了하엿다

閉院式勅語를 廣田外相奉讀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六日來 永田町私邸에서 靜養中이며 八日 閉院式에도 參列치못하엿다 閉院式勅語는 廣田外相이代身奉讀하엿다

閉院式勅語

【東京電話同盟】八日第七十一特別議會 閉院式에 當하야 左와如히 優渥하옵신 勅語를 下賜하옵시엇다

勅語

朕 貴族院及衆議院의 各員에 告하노라

朕 本日로써 帝國議會의 閉會를 命하고 卿等이 勵精하야 協贊의 任을다한 勞를 嘉尙하노라

川越大使談

【上海七日發同盟】川越大使는 七日午後十時 通信記者團과 會見코 如左히말하얏다

日支의時局은 益益重大化하야 客觀的情勢는 漸漸危局을向하야 進展하고잇스나 自己로서는 最後까지 自己의 힘것을 盡하야 努力하고저 하고잇다

劉湘南下

蔣介石과重要協議

【南京七日發同盟】四川의 劉湘은 七日午後四時半 飛行機로 南京着 直時軍官學校內官邸에 蔣介石을訪問、北支時局問題를 中心으로 重要協議를遂하얏다

閣僚禁足令

議會後도依然繼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日定例閣議에서 議會의뒷처리及 對支問題에對하야 議會後처음協議하기로되엿는데 時局에鑑하야 閣僚禁足令은 當分이를解除치안코 九日以降 連日正午부터 閣僚會議를開催하야 情報를交換하기로되엿다

泰安紡績

六日操業停止

【漢口七日發同盟】日本棉花系의 泰安紡績(二萬五千錘)은 六日夜 操業을 停止하고 七日正午支那官憲立會下에 工場을 封印하고 市政府에 열쇠를委託하고 邦人社員二十名은 八日漢口發 岳陽丸으로 撤退키로 決定하엿다

四全大會招集

支那國論統一

【上海七日發同盟】支那側外交部側의 情報에 依하면 南京政府는 國防會議를 召集하야 最後的 全面的 對日戰備를 整備하는 同時에 政府의 態度를 國民大衆에 傳達키爲하야 近近第四次中央執監全體會議를 繰上召集하기로되여 五日의 中央常務委員會에서 正式決定하야 六日夜 全國各地에잇는 中央執監委員에 對하야 緊急召集令을 發하얏다

루大統領勝利

米國上院서可決 司法制度改革案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上院은 七日司法制度改革案을 表決에 依하지안코 可決한後 二週間休會하엿다 改革案은 卽時下院에回附되엿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의 理想은 歪曲된 下級聯邦法院의 更生에잇다고한다

外報一束

伊、對佛關係調整進出 對英接近工作에併行

【巴里七日發同盟】巴里駐箚伊太利大使 세루티氏는 六日午後佛國首相숌탕氏를 訪問하고 懇談하엿는데 仄聞한바에依하면 伊太利政府는 對英接近工作과 併行하야 對佛關係調整에 進出하기로되여 세루티大使의 숌탕首相訪問이 具現된것이다 伊佛交涉의 前途는 아직 豫測을不許하나 佛國政府는 大體로左와如한 意向을갓고잇다한다

一、佛國政府는 伊佛接近의代償으로 伊太利義勇軍의 西班牙領 발레아리諸島에서 撤退하고 佛國本國과 아프리카屬領間의交通線脅威를 取除할것을 要求함에 그代償으로 佛國政府는 에디오피아의 伊太利主權承認問題를 考慮할豫定이다

英政府의建艦作業 晝夜兼行으로進行

【倫敦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大軍備計畫에基하야 晝夜兼行으로 軍艦建造에 當하여잇는데 鐵不足으로 米國유나이테드社船 레버선號(四三、九四三噸 一九一四年建造)를 買入하야 建艦材料에 充當할意向이라한다 英政府代表는 七日出帆한 퀸메리1號로 紐育에向하야 出發하엿는데 交涉이 成立되면 레버선號는 英國에 從航될터이다 英國海軍省은 現在三萬五千噸 主力艦五隻을 建造中인데 一九三六年度建造計畫中 다시同級五隻의追加建造를 議會에 要求하지안흘가 觀測된다

米國新驅逐艦進水

【보스톤七日發同盟】米國海軍驅逐艦 막꼬드號는 一九三五年九月二十五日起工 보스톤海軍造船所에서 竣工을急히하고잇든니 七日進水式을 擧行하엿다 同號는 그레본級 驅逐艦으로 千三百九十五噸이다

九日、米絹總罷業?

【파터순－뉴－저시州七日發同盟】CIO指揮下의絹業爭議는 一層險惡化하야 七日午後 파터순絹業勞働者約一千名參集下에 勞働者大會를 開催하고 絹業總罷業을 決議하엿는데 來九日實期하야 一齊히罷業을 開始하라는 指令을 發하엿다

日曜氣配

◇株 中南支方面의 抗日氣運 强化로 全面的衝突은 免할수 업는 形勢인데 이氣分을 反影하야 特히 在支紡績株는 不安을 感하야 投賣되고 其他諸株도 漸落의 傾向을 示하엿다 時局을 念慮하는 買物은 出動을 不得己하게되고 市場의 目先觀도 支那問題로 前途의 豫斷을 不許하는 狀態이다

大新	七五、五〇
新東	一三五、八〇
鐘新	二四七、五〇
日産	六九、〇〇

◇米 支那人氣旺盛에 軟派의 追擊이 急하게되어 마츰내 二圓臺關門을 無難히 突破하야 新安値를 演出하엿다 市勢도 天候合理와 突然한 反動으로 回復歩調이나 積極的買戾는 賣組의 擬合이라 氣配는 三十二圓十二錢－十三錢

辭令

任總督府道警視 (平南)道警視 蔡顧殷

任總督府郡守(六等) 命平北宜川郡在勤 (忠南道保安署長)道警部 吳寧世

任總督府道警視 命慶尙南道在勤 (慶南)道警視 鄭忠源

命平安南道在勤 總督府遞信書記 松井愍八

任朝鮮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總督府鐵道局書記 中奧宮吉

任朝鮮總督府鐵道局副參事(七等) 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熊平郡次

總督府遞信副事務官 松井愍八

總督府鐵道局副參事 中奧宮吉

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熊井郡次

依願免本官(各通)

人事·集會

▲山田忠次氏(遞信局長) 群山海事出張所落成式에 臨席次 九日午前十一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群山에出張 十一日歸任豫定

八面錄

◇第七十一特別議會 八日로써 豫定대로 閉院式擧行。

◇五億以上의 追加豫算을 質問도 別로업시 一瀉千里로 通過식히고。

◇一億以上의 臨時增稅案도 오히려 輕하다는듯이 反對업시 집어치우고。

◇社會保健省을 新設하자는 案도 기다리고잇섯다는듯이 滿場一致로可決。

◇非常時擧國一致內閣下의 特別議會로서는 當然한風景。

◇內로相剋摩擦을업시하고 外로國際正義를 實現하겟다는 近衛內閣의 使命은 [illegible] 實現한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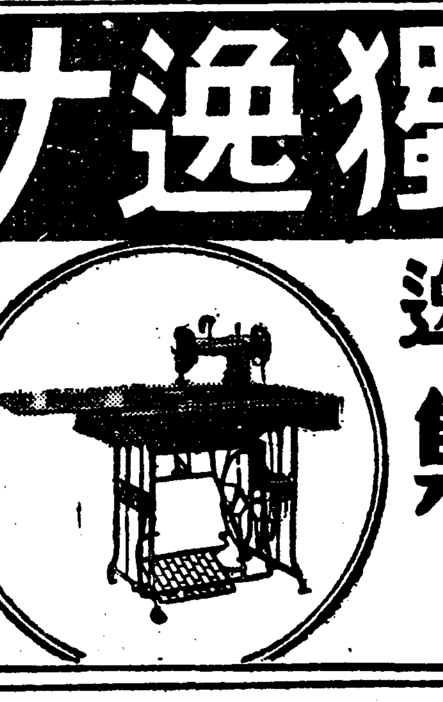
今日本紙四面

世界第一獨逸ナウマンミシン

○裁縫界의覇王獨逸

나우만裁縫機械家庭一品

全鮮內郡部代理店募集 一郡一店



月賦販賣開始

申込所 平壤鐘路(和信前) 朝鮮總代理店 愛國商會 電話二一五七番 振替京城九三六九番

東洋總代理店 東京 高橋商店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上達の極意公開！タッタ七日で上達する請合書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四一

歐米各國世界第一特效藥完備

米國生物學士 韓箕道內科醫院

京城鍾路パコタ公園正門東側隣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期後)

京城 生徒募集 中等豫備專修學院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編入學受驗準備) ◎最近校舍新築大擴張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001580

鴨江水位漸次減下
問題는災民救濟
居處도업는데食糧도업서
各方面有志들이蹶起

【本社新義州特派員金明奎電話】 륙일아침부터 폭주하는 비로인하야 칠일새벽에이르러 갑작이 압록강의증수를보아 신의주(新義州)를중심으로 공전의홍수난을이루고잇든중 가장위험지대인 신의주부외 마전동(麻田洞) 민포동(敏浦洞) 북하동(北下洞) 일대는 오늘아침부터 다행히감수되여 저윽이안도의빗을띄우고잇다 금팔일오전열한시까지에 판명된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新義州府內 浸水家屋 五二二戶 ▲敏浦洞과麻田洞流失家屋一九戶 倒潰五八戶 浸水三九三七戶 ▲北下洞 流失二戶 行方不明六名 浸水家屋 五八〇戶 ▲白馬 枇峴 石下 浸水 一〇四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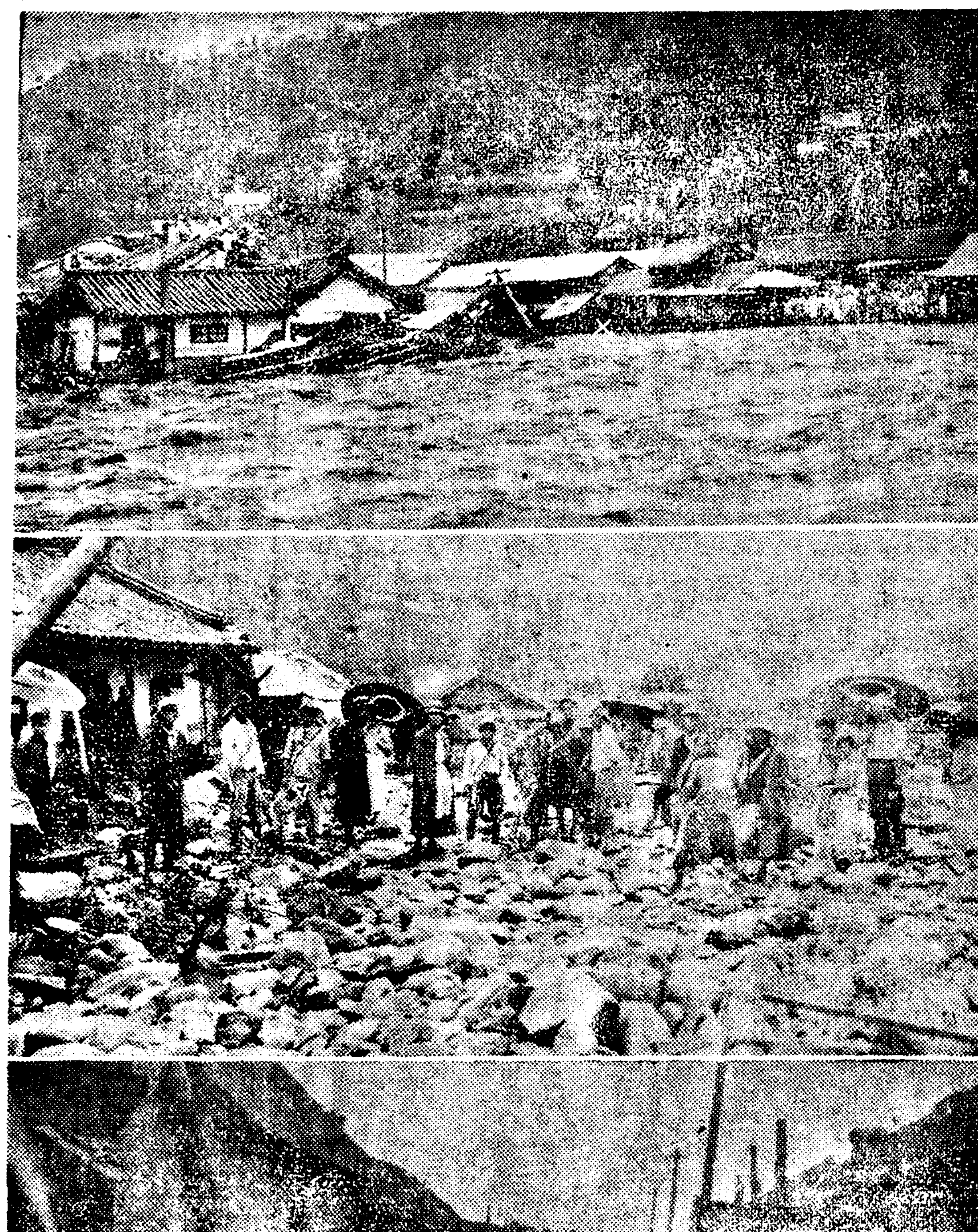
이상과가튼 피해수자를보이고잇스며 신의주일대의 리재민은재방우로피난하야잇는데 확실한수자는 알수업스며광성면(光成面)사무소에 삼백이십구명 신의주제일공보교에칠백명 제이공보교에 일백칠십명을 수용하고잇다 압록강의수위는 오늘아침 열한시 현재가위화면(威化面)부근이 사메돌오십이고 세관압잔교가 오메돌인데 점차감수되고잇스며 리재민에대한 동정의 손길은 각방면에서 뻐치려고하는중에 작칠일밤에는 제일착으로 신의주 영정(榮町)에잇는 해산상회(海山商會) 김의룡(金義龍)씨는 백미여섯말로 주먹밥을 만드러 제방우에피난중인 리재민 삼백여명에게 분배하엿다

兩沿岸은宛然赤地
食糧缺乏救助絕叫
到處에暗澹한慘相이展開
프로페라船타고 昌城에서下流로鴨江岸視察記

【新義州特派員金明奎發信】 수해지 삭주(朔州)를 답사한 기자는 칠일 창성(昌城)에 나와 겨우 푸로페라선을 잡어타고 노도광란(怒濤狂瀾)의 압록강을 나려오며 연안일대의 암담한 수해상황을 볼수잇섯다 오일밤부터 다시 나리기시작한 비에 드디어 평북연안 압록강은 갑작이 물이불어 신의주부외 마전동(麻田洞)을 비롯하야 각처에 침수가옥을 보게되엿는데 창성(昌城)연안의칠일오후열두시현재 록미홍삼십오에 달하고 신의주로 나려오며 차차 증수가 심하여저 의주군가산면 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에 이르자 증수는 점점 우심하야 대원광산(大元鑛山)등의 천수를 보게 되엿다 그곳서부터 압록강연안에 잇는 농작물은 침수되기시작하야 조선측과 만주국측의 의기시작한북식은모다 쓰러젓고 구리도(九里島)를 지나 의주(義州)구룡포(九龍浦)에이르자 부근의농작물은 물론 구룡포세관출장소를 남겨두고는 전시 약팔십호가 전부침수되여 암담한상태를 보이여 기자로하여금 몸서리를 치게하엿다 구룡포를 지나 신의주로 향하자니 증수는 점점 심하여 량편강안에 산재하여잇는 집은모다 침수、류실、도괴되엿고 만주국측의 마시대(馬市臺)를지나 위화면(威化面)상단동(上端洞)으로부터는 지난칠월에 기공식을한 평북도영의 공업용수도 공사장 침수를 비롯하야 전도(全島)가 거이 전부침수상태로 큰바다를이루엇섯다 물가운데는 점점히보이는 나무꼿만이 홍수를원망하는듯초연히 서잇섯다 상단동을 지나 하단동(下端洞)에이르는안동현(安東縣)측의압록강안에잇는 사천여호는 모다침수하얏고 하단동북하동(北下洞)약백호는침수되여 피난민들은 그곳에서가장 놉다고하는 세관(稅關)출장소부근 저근제방(小堤防)에 천막을 치고 피난중이나 식량을운반하지못하야 제일 걱정이라고한다 기자가탄 푸로페라선은 대일붓을 몰으려고 세관부근에 이르자 피난민들은 식량이나운반하야 오는줄만알고 달려모어드는정경은 참아볼수가업섯다 배대일곳을 몰으디 신의주세관잔교(棧橋)에는 홍경이 세여배를대일수업다는것이여서 선창과선부의 지혜로 겨우 칠일오후 여덜시 신의주 제지회사뒤에잇는 사파(四泊)에배를 대이엿슴으로 가치탄은일행은 도라가는 하라버지나 맛난것처럼깃버하얏다 (七日夜十時記)

安東縣舊市街에
浸水九千餘戶
附近一帶는泥海化

【安東縣】 칠일오후 조사에의하면 련일내리는비는 안동현까지지 엄습하여 칠도구강안통(七道溝江岸通)은 침수가옥 삼백호이고 하팔도구(下八道溝)는 침수가옥 일천오백호이고 구시가는 제방으로 물이넘어드러 전시가가삼분의이가 침수되여 구천여호침수라고한다 구시가피난민은 원보산(元寶山)에가서 피난하고신서가강안통과 팔도구피난민은각학교와 공회당에 피난되여잇다 또 강안통만재제재회사(江岸通挽材製材會社)갓부 리성렬(李成烈)은 동회사에서 지난칠일오전십일시경 류실되는 목재를 건지다가 실수되여 익사되엿다고한다



鴨江水害畵報 (上)의주군중태리(義州中台里)의 인명구조광경 (中)중태리둑이싸인집터(以上新義州支局發) (下)안동현(安東縣)구시가의 침수광경……(安東縣支局發)

安奉線全部杜絶
通信과運輸不能
三、四日後에나開通

【安東八日發同盟】 련일계속하여 나리는 비로 말미암아 안봉선(安奉線) 계관산(鷄冠山)추목장(秋木莊)사이의 『턴넬』근처에 산이무너저서 선로가 파무친이외에 전선수개처에 철로바닥이흘러가버리고 기타여러가지사고가생기고 특히고려문(高麗門)부근은 물이나서 아주고립되여통신련락도 끈허젓다 칠일아침부터 안봉선은 통신과 운수가한꺼번에 완전히 끈허진 세음이다 방금 안봉선각역에는 렬차가 열개가 오도가도 못하고 멈추고잇는데 고립된곳이 만키때문에 식량이업서서 염려된다 복구되기까지는 아직도 삼사일걸릴모양가래보이며 안동에는 사백여명의 북행려객(北行旅客)이묵고잇서서 큰 혼잡을 이루고잇다

無窮花

流言蜚語取締에
陸軍刑法을適用
三年以下의懲役處罰

북지사변에 관련하야 류언비어(流言蜚語)를 함부로전파하는사람은 경무당국에서 엄중히처벌하겟다고 수차경고한바 엇거니와 요지음 경향가지에서 흔히 정저나무미레서나 홍은(술집)가튼데서 여러사람이 모혀안저서 사변이야기끄테 사실무근한 헛소문을 서로전하야 민중을혼캐하는 일이가끔잇서 헌병대(憲兵隊)에서는 한층더엄밀히 취체의 손을뻐치고잇다 만약 류언비어를 전파하는사람을 발견하는때는 육군형법(陸軍刑法)제구십구조의『전시 또는 사변에당해서 군사에관한조언비어(造言蜚語)를 하는자는 삼년이하의 금고(禁錮)에처함』이라는 조문을적용하야 용서업시처분하기로되엿다한다 그러므로 시분지상에 보도된사실이외에는 공연히 남의말을옴기고 전하거나 흥미여측으로북지사변에관련된이야기는 모두삼가해야만할일이다

行方不明된運轉手
投身自殺로判明
明水臺아레에서屍體로發見
"悲戀情死劇"遂完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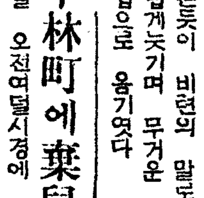
기보=지난오일오전열시쯤 시내 상왕십리(上往十里)일백구십사번지에산다는 김순랑(金順娘)(二七)이라는여자와 그의애인인 시내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의 김기석(金奇石)(二五)은 서로지극히사랑하는 사이엿스나 그남자에게는 만흔가족과 처가잇는몸으로 사랑도뜻과가티 되지안홈을비관하고 한강명수대 절벽에서 그전날밤에『휘스키』를서로밤새도록마시고 한강을 향하야투신자살을 꾀하엿스나 여자는바위에걸리여 산풀에 떠려저서부상만하엿고 남자는 한강언덕에 웃옷벗과 신발만 나머잇고간데온데업서젓다고 룡산서에보고하야 사랑하는이를 차저달라고하엿스나 그후 수색하여본결과 확일밤열두시쯤 한강명수대아래에 김기석이가 죽어떠올르는것을 발견하여 그간룡산서에보호중인 김순랑은 알게되엿다 가티정사하려든 정랑이 절신에주상을맛고 투신자살을 한것을날게된 그는 고해의 덧업는운명을 비웃는듯이 비련의 말로를 새삼스럽게 늣기며 무거운 거름을 자기집으로 옴기엿다

中林町에棄兒

작일 오전여덜시경에 시내중림정(中林町)이백구십구번지 김치범(金致範)씨의 집대문안에 어떤사람이 두살된 사나이한명을 버린것이엇섯는데 서대문서에서는 방금 그범인을 엄탐중이다 아이버린것은 생활난으로그러한것인듯하다고한다

스포ー츠欄
京城府民水上

鄭君二百米自由型二着



朝鮮水上競技聯盟主催 京城府民水上競技大會第二日은八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水泳場에서擧行된바 이날遠來의 平壤水產俱樂部의 鄭安景君은 百米自由型決勝에一着、二百米自由型決勝에 二着을하야 氣焰을 吐하엿다(寫眞은 鄭君)

【三百米메도레】 1鐵道팀三分五一秒二 2京城A팀 3遞信팀 4大塚팀 5龍中팀 6京師B팀

【百米平泳決勝】 1鈴木(京師)一分二五秒二 2河部(遞信) 3岡崎(鐵道) 4吉村(鐵道) 5林(京師) 6大田(龍中)

【四百米自由型決勝】 1藤田(鐵道)五分二六秒四 2岡美(龍中) 3吉見(京師) 4鈴木(鐵道)

【五十米自由型決勝】 1三宮(鐵道)二九秒 2赤司(福岡高商) 3宮本(大塚) 4高領(櫻井) 5山本(普成) 6赤石(遞信)

【二百米背泳決勝】 1有川(遞信)二分五三秒 2熊澤(京師) 3三浦(龍中) 4和智(大塚) 5福地(京師) 6大宮(京師)

【二百米自由型決勝】 1明神(鐵道)二分二八秒 2鄭安景(平壤) 3清島(鐵道) 4久末(京師) 5本村(龍中) 6吉見(京師)

【千五百米自由型決勝】 1藤田(鐵道)二二分五九秒四 2岡美(龍中) 3渡邊(鐵道) 4清島(鐵道) 5小林(京師) 6石神(龍中) 7川崎(龍中)

【二百米平泳決勝】 1鈴木(京師)三分七秒 2岡崎(鐵道) 3吉川(龍中) 4岩崎(龍中) 5太田(龍中) 6首藤(龍中)

【二百米릴레】 1鐵道팀一分五五秒八(朝鮮新記錄) 2遞信팀 3京師팀 4龍中팀

【百米自由型決勝】 1明神(鐵道)一分四秒 2三宮(鐵道)一分四秒七 3鄭安景(平壤)一分六秒八 4宮本(大塚) 5久末(京師) 6木村(龍中) 7山本(普成)

【百米背泳決勝】 1有川(遞信)一分一八秒八(朝鮮新記錄) 2熊澤(鐵道) 3福知(京師) 4三浦(龍中) 5和氣(京師) 6大宮(京師) 7鈴木(鐵道)

孫마라손王
勝利의昨年今日
말럿든榮譽의橄欖樹
今夏奇蹟的蘇生
東京世田谷植物園에서方今栽培中
孫君은歸省中水害로苦難中

팔월구일! 지난해의 이날은 손기정(孫基禎)군과남승룡(南昇龍)군이 일본대표로서 백림올림픽 마라손에 출장하야 세계삼십여개국대표 오십륙명의 강호를 다치는대로 잡어제치고 일착과 삼착으로 꼴에드러선 력사적으로 기념할감격의 날이다 과연『스포ー츠』계는 물론 전세계를 경동식힌 이날이다 이력사적우승의 선물로바든 감람(橄欖)나무가 당시귀국도중배깐에서아깝게도 시드러버려 모처럼바든명예의 선물이 아주말려버리지나안는가십허 념려되엿섯는데 그때 손군이 동경에 개선하자 재동경『펭귄』구락부원들의 알선으로 시드른 감남나무를 세전곡구(世田谷區) 북택(北澤)에 잇는 식물원(植物園)에 위탁하야두고 경성에 가지고온것은실상독일서 가져왓든것과흡사히만들어온는그식물원의 것이엇다 그동안『펭권』구락부원들이가진정성을다하야 손군의명예의 감남수를 살리기에 힘써왓는데 지난봄부터 신기하게도 말러버렷든줄만알엇든 나무그루에서 새싹이나서 지금은 백림을 떠날때와가티 업사귀가무성하엿다 과연반가운감격의 소생이다 겸하여 이소식을 바로 팔월팔일에 전해온것도 기연중의기연이다

손군은 그후곰춘양정고보(養正高普)를 졸업한후 보성전문(普成專門)상과에 입학하야 추실한 학도로써 학업을 닥는여가에 여전히 장거리경주를 꾸준히연습하고 잇는데 닥처올 동경올림픽에는 출장할는지미정이나 작년이날 마라손왕의영예를 획득한 스포츠맨의명예만은 일치안호려는결심을가지고잇다 그런데 손군은최근하기휴가로 신의주(新義州) 부외 민포동(敏浦洞) 자택에 도라가 향중에 잇든바 때아닌수재를맛나 집까지 침수하야 고난속에서뜻깁흔이날을 맛게되엿다 또 남승룡군은 금춘명대(明大)전문부를마치고 동대학법학부로드러가엿섯공부중인데 동경올림픽·마라손제패를 목표로의지중하고 잇다 (사진은사러난감남나무와손기정군)

侍天敎堂借用에
兩校가對立紛糾
幹部間暗流도表面化

지난오일 경성녀자상업학교(女子商業)가 홍제정(弘濟町)에 신축이전한뒤 그학교에서 사용하여오든 견지정(堅志町)시천교당(侍天敎堂)의 임차사용권(賃借使用權)을둘러싸고 두학교가 대립이되여 교육계에조치못한 소문을 퍼칠뿐아니라 시천교간부사이에 흘르고잇든 암류가 드디여 표면화하게된사건이잇다

동교당은 작년팔월에 전기녀자상업학교가 이전하는대로 동교교인 한관섭(韓寬燮)씨가 신설운동중인 일본대학부속중학교분교(日大附屬中學校分校)로사용하기로 동교간부와 한씨사이에 계약이성립되엿다 그러나 일년을지난 오늘까지 학교가신설될가능성이 보이지 안는다고하야 일부간부가 충동이되여 그사용권을 천도교당(天道敎堂)을빌려쓰고잇는 성신녀학교(誠信女學校)에 주기로 계약이 체결되여 엿샛날 이사에착수하엿다

한편한씨는 동교당의 기지와건물의 명의자인 동교유력자유지훈(柳志薰)씨와의 사이에 현재교사가업서 곤란을밧고잇는 명성학교(明星學校)에 빌리기로교섭이 성립되여 가튼날 이사를 시작하엿스나 교간부와 성신여학교측의반대로 부득이 이사를 중지하고마럿스니 여기에 이두학교는 교사문제로 정면충돌을 보게되엿다 이문제는 수송정(壽松町)불교중앙총리원(佛敎中央宗理院)을빌려쓰든 명성학교가 그집개축으로 말미암아 새학기를 압두고 교사가업서 일대곤난에 당면해잇는니만큼 사회적으로도 큰파문을던지고잇스며 동교오백여학동의 학부형에게는 실로중대한 관심사로 그귀취는자못주목되는바이다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 支那中部、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海上에잇는데 모다 그勢力이弱하다 不連續線이 半島中部에잇서서 鮮滿氣壓配置는 不安定의弱한 鮮滿內地가모다 曇天이나 處處에 小雨가잇술듯도하다

豫報 京城地方은今夜는曇天인대때때로小雨가잇슬듯도하다

昨日最高 三一、五
同最低 二四、二
今朝溫度 二二、二
今日正午 二七度八

民間事業團體의
積極奮起를催促
時局關係宗敎團體熱誠은感激

전시체제하에서 거국일치로호응하야 전조선은바야흐로 관민일치와동시에 내선도한완전일치를 실현하게되여 남총독(南總督)은 지난번 국장회의석상에서 아번과가튼 절호기회에 이러나지안는단체는 심히유감이오 이등단체에대하야는 적극적분기를 재촉할것이라는 의향을표명하야 이래전조선각종정신단체는 거의다 한몸이가되어가지고 애국운동에매진하며 유사종교단체까지 분연참가하야 령세한 헌금으로써 그적성을보이는등 그할동은실로 눈물겨웁게 감격한바잇는데 일방민간사업단체방면을살혀보면 실로한심한바잇슴으로 중앙정보위원회(中央情報委員會) 또는군사후원련맹(軍事後援聯盟)등의 기관에서는 그래도에대하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경고하야 분기를재촉할필요가잇다는주장이놉하서 불일간 민간사업회사방면에도 적극적분기를재촉하기로되면모양이다

高工鑛山科擴充
學務局의對應策!
產業獎勵資源開發方針에

산업장려와 자원개발등의 대방침에의하야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에대응할 기술원의 양성을목표로 명년도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工)광산과에 교수증원과 실습시설의 확충을단행하고자 그소요경비를 요구할터이다 이와동시에·동고등공업학교안에는 전기과 기계과등도신설할계획으로 근근식산당국과협의결정한후 구체안을 세울터이라한다

胃腸가다루 最良藥
柏村博士創製
ヘルプ 헤루프

本邦胃腸藥中가장精妙한新處方을配合하야燦然光輝잇는成績을表하고二十年來無比의聲價를保持하고잇는헤루프는食傷、水傷、季節傷、寢冷、冷腹等에起因한腸胃가다루의治療에効果第一이라는名聲이잇고特히泄瀉腹痛을迅速히消退하야消化와營養機能을促進시키는作用은實로痛快適合이더할나위업고慢性、急性의腸胃疾患中左와如한症狀에應用하야快히滿足한奏効를볼수잇는良劑이다

●어쩐지배가거북할때 ●大便後肛門에 異常한感覺이잇슬때 ●목이마르고가슴이답답할때 ●急激히泄瀉하야腹痛이날때 ●頑癖한泄瀉에 ●배가땅기는때 ●맹물가튼泄瀉에 ●포록 ●배끌는대 ●건구역날때 ●食慾업고 트름이만흘때 ●胃部에灼熱性의疼痛이잇슬때 ●食前食後속씨린대 ●구갈으로惡臭날때 ●榮養이나빠서 貧血症일때 ●粘液便을보고 滋養이살모가잔흘때

定價 二十錠 五十錢 一圓 三圓 大瓶

本舖 東京日本橋 津村敬天堂

各鳥獸高價買入
東京市下谷區入谷町三九〇 東京名物猪料理山口屋直營
京畿道龍仁郡內四面
山口屋小動物園
山口屋小動物園分園

京城府壽松町一二六(安國町四街里)
李先根小兒科醫院
隨意入院 溫水暖房 各獨房
院長 李先根
副院長 龐德興
電話光③二〇〇八番

淋疾
淋疾은먼저根源을治療하시라!
安全하고危險업는揷入藥의發明

淋疾을全治하는대는 尿道內의淋菌을 死滅식히는것이絕對必要합니다 그런대 從來의內服藥은 尿意를促進하야 尿道內粘膜의表面을 一時的으로는 滑擦할수잇스나 病巢深部의淋菌은 容易히 死滅안됨니다 洗滌、注入等은 水溶液이기때문에尿道彈力으로 卽時外部에流出하야 尿道內殺菌時間은 僅僅數分에不過하고 또水壓力으로 尿道括約筋을突破하고 淋菌其他의汚物을後部로 移送하야 副睾丸炎其他의餘病을併發할危險이잇슴니다

우라루고ー루는 殺菌力이強하고 粘膜深達性이豊富한粉末이다 이粉末은獨特한方法으로 자못簡單安全히 尿道內에揷入되며 揷入後의粉末은 尿道粘膜에골고루分布密着되는대로 徐徐히 溶解、浸潤하면서 數時間에亘하야 殺菌作用을 이르키고 粘膜細胞組織下에 潛在한淋菌에까지浸達한다. 故로 우라루고ー루를數本使用하면 初感染은勿論이고 設令 慢性難治의淋疾이라도 그効果는實로놀랄만하다

우라루고ー루
ウラルゴール
日英米佛製法特許

ウラルゴール種類及定價
短管(豫防用、初感染用) 三本入 〇円七五
(男子慢性初試用品) 十本入 二円〇〇
少女 膣用 十本入 二円〇〇
中管(男子慢性及再發用)(女子尿道及膣用) 十本入 二円五〇
長管 男子慢性頑疾用 十本入 三円〇〇

慢性には一日一本或は二本使用し約十日間繼續すべし。使用法は頗る簡單にて安全 使用に要する時間、一本わづか二、三分
各地の知名藥店及びデパート藥品部にあり もし品切れの時は直接御注文あれ

發賣元 友田合資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ノ一 電話日本橋(二八〇 二八一 七四七 四九) 振替口座・東京・一九三八
實驗各博士の說明書進呈

下水溝工費坪數割 舊市街府民大不平
土木課長의不信任案處理等 平壤府處事를注目

【平壤】일전에 소집되엿든 평양부회에서 하수도공사의 비용을 보충키위하야 수익자에게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의 부과를 하기로되엿다함은 기보와갓거니와 부회석상에서도 김정호(金貞浩) 의원은 신시가에는 평수할부과제도가 업시 발서수년전에 하수공사를 실시하엿슴에 불구하고 맨나중에 구시가에 하수공사를 겨우실시한다는것도 억울한터인데 거기에다가 토지평수할까지 실시함은 무슨리유이냐?고 유비하여 장내를긴장시켯고 부리사자들도 답변이궁하여 어쩔줄을몰으게헤거니와 사실상 구시가에사는 주민으로서는 하수공사실시를압두고 이런 모순된 경정을하게된 부회에대하여 공격이 결코적지안타

그러고 부회에서 부하가 부청을 무대로 수만원의 현찰을 하는것도 아지못하고 잇는 아부(阿部)토목과장의 책임을 뭇고 급기야 불신임안(不信任案)까지 제출하고 여기에대한 설명을하려햇스나 결국불신임 건의안으로 수리하기로하고 설명만은 중지하고마럿다하나 평양부토목과는 사면초가의 상태이어서 불신임건의안의 처리를입바든 주목하고잇다

또토목과원 리기영(李基英)에게사기를당한 신양리(新陽里)경창리(景昌里)일대의 피해자들은 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소동이연출되여 이방면에도 또한다대한관심을가지고 추이를 주시하게하고잇다

工作部 淸水

農城書堂에曙光
金翊濬氏가責任引繼

【城津】성진군학중면 농성동(城津郡鶴中面農城洞)에잇는 농성서당(農城書堂)은 대정구년에창립된 농촌문맹아동의 유일한교육기관으로 촌동주우 십오개성상을 넘더지 못한재원으로 때때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도 수다한 영재를길러낸 빗난력사를 가진 존재라고한다 이제동서당은 생도는 날로증가하야 지금은 이백여명에 달하엿고 일반의기대만은 점점더커저서 하로바삐 사립학교로 승격하지안을수 업게되엿스나 충실한 재원이업시 발전되지안어 이를념려하는 동민유지들은 루차회합하야 유지방법을 강구하여보앗스나 유력한 방침이 업는농촌경제 현상이라 하어 동서산이 업서 그서당의 장래는 비운에 빠질수밧게 길이업든중 물련 해동 김익준(金翊濬)씨가 그러ㅂ다지 못한 처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당경영의 일체책임을 질것을 선언하고 우선일금천원을 희사하엿다는데 일반농민들은김옹(翁)의 거금희사에 크게놀라는동시에 감사함을 마지못하야 김옹을 설립자로 추대코저 지난삼일에 성대히 추대식까지 거행하엿다고하며 한편으로 즉시 사립농성사립학교로 승격하고저 인가신청도 수속중이라는바 일반은 김옹의 그장거에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經常費改正의 開城府會開催

【開城】지난오일오후한시부터개성부청 회의실에서는권부윤(權府尹)의 사회하에 소화십이년도경제세출경정(經濟歲出更正)에 대한심의가 잇섯는데 이것은즉 경상비(經常費) 십륙만사천팔백오십팔원중 일천원을 빼내서호군비(軍費)로 사용하자는것이엿든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한다

大浦서國防金募集

【東草】요사이 금반을 전하는 중대시국에감하야 강원도대포항에도 국방헌금이 각계에서 답지중이다 지난삼일——재향군인대포반(大浦班)과 도천(道川)소방조의 협력으로 모집된 국방헌금 이백원을 제일차로 한둥재향군인회지부에 기탁한것을필두로서 국방부인회 대포분회회원들은 지난일일부터 구십여도에달하는 염천을 무릅쓰고 땀

浴客으로假裝하고 貴重品을窃取
犯人은大邱署에

【大邱】수일전부터 대구 시내 갈봉우왕(永谷湯)에 욕객으로가장하고 드러가서 손님의벗어둔 옷을통으로 금품을 절취하다가 잇서 소관대구서에서는 그동안 범인을 엄탐중이엇든차에 마침일오후시경 대구부내 매정목욕탕에 거동수상한 자가잇슴을 탐문하고·서원이달녀가서 무난히체포하얏는데 그는부산부영주정(釜山府瀛州町)번지 리명선(李明先)(二七)이라는자로서동래(東萊)에서금칠십원을절취한것을 비롯으로피해액 륙백여원에 달한다는바 일반은 귀중품을반드시 주인에게 맥기고입욕하는것이 제일안전하다고한다

……사십오원을 모아 지난 사일 …… 주서에 기탁하여왓다

水道橋通行禁止로 綾羅島住民困境
時局關係의交通遮斷

【平壤】대평양의 중앙을흐르는 대동강에 포위되어잇는 능라도(綾羅島)일대에는 수십호의 주민이살고잇는데 수십호의 주민대부분이 시내에와서 장사나 또는로동을하고잇는 터인으로 아침에는 적은배로 간신히 강을 건너오든터이나 해가지물에는 나루질할배가 업서국도의 곤난을 늣기고 잇스며 그런다고 수도교(水道橋)도 시국관계로 통행할수업서 가는곳마다시의 시민이면서 이런불편을 당하는것은 참을수업는일이라하여 편리한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능라도주민들은 부르짓고잇다

(鄭泰元)씨는 …… 시국에대하야 토의하고교인들이 출동하야 일금십원을등 지 경찰관주재소에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엿다한다

天道敎會에서獻金

【淮陽】회양군부북지부포운이 날로 방한을따라 회양천도교 종리원장(淮陽天道敎宗理院長) 조래원

自動車部員들獻金

【海州】해주읍 남본정(海州邑南本町)에잇는 서선회물자동차부

라디오

八日【日曜】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 齊唱와唱歌 一、齊唱주의 아해 三、齊唱시간 四、獨唱 청궁가신어머니(洪貞順) 五、齊唱 미의조흔칠의 六、獨唱시내물(李如珠) 七、齊唱 늘품나무 八、齊唱비방울 九、齊唱반짝

◇午後六時五〇分(大) 夏休雜六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特輯演藝

◇同八時一〇分(東) 物語

◇同八時三〇分(臺) 水十外

◇同八時五五分(東) 講談

…… 七、齊唱아름다운세상 장미 十一、齊唱…… 指揮 鄭上鎭 伴奏 申在德

◇同六時五五分 …… 崔南善

◇同八時 脚本朗讀「이러스는집안」 黃澈

◇同八時二五分 一、小春香歌 二、사철가 三、달거리 鄭貞善 金秦運

◇同八時五〇分(平) 배뱅이굿

◇同一〇時 音律「靈山會相」 玄琴 李彦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杖鼓 池龍九

長篇小說 花冠【11】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여름밤의 꿈(十一)

동옥은 가슴의 두근거림이터욱노파졋다。 미인이라고 해서엿던지 무어라고 해서엿던지 아지못하는 남자들이 마중을 나와준것만해도 새처럼 놀람에빠른 가슴이 고요할수 업는데 더구나 그중의 한사람이 자기를아노라햇다는것과 바로 그사람이 지금들아다 본바가치 제일압흘서서 올개미나 던지려는것처럼 어옹한눈을 쏘아보며 따라오는 데는 호기심보다는 무서움이일어낫다。

『애?저인 웨 저러케 우릴따라오니?』

『어디?』

하고정히는 또돌아보더니

『따라오긴 월모두가든들 오는게그러치 그이만 오니어듸?』

하고천연스럽다。

『넌 아주 익숙한데 익엇구나!』

『익다니?』

『어쩌문 그러케 익숙하게 쳑 소갤 식히구 뒤에 남자들이 오는데도 천연스러우냐?』

『그럼 괘니 쭌엿거릴건 뭐잇나? 사내들은 사람이 아니구 뭐 하누님이나 되니?』

『하누님만 무서운가?』

『그럼?』

『호랑인?』

『호~랑이?하하하!……호랑이들!』

하고 정히는 거름을 멈추고 손벽을 다 치며 간간대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뒤에서도 누군지 한사람이

『거 뭐들을 그러케 웃으십니까?』

하는 소리가 와다。 동옥은 그만 뛰고말앗다。 정히도

『호랑이!하하하……』

하면서 따라뛰엿다。

『잠 내 가방?』

『우리 오빠가 들엇서……우리 인제 딴스 가리켜줄이말야』

『처런!꽤 무거운데』

『이따 고맙다면 되지안니?』

어느듯 두처녀는 해수욕장나가는 큰길로 나섯다。 파도소리가 갑작이 가까워진다。 눈이부신 모래길, 경주장처럼넓고 일적선인것이 솔밧사이로 한 삼사백메둘 깔려나가다 끈허젓는데 거기는 시퍼런 바다의등어리가 우리 우리 소사잇다。

『야!바다……』

동옥은 숨이 차 마음으로만 뛰듯한다。

『송전 조치?』

『참 조쿠나! 소나무들이 어쩌문 모두 파라솔 처럼 됏나?』

『그러게 여긴 바다보다 솔밧으로 유명하단다 이름부터송전 아니냐?』

『송전 솔밧 참!그런데 호랑이들 그저 나오나봐라』

정히만이 돌아다본다。

『저리 집으로들 가는 모양인데…… 넌 사내들이 괘니 무서우니 어디?』

『괘니 무서울건 업서두……』

하고 동옥은 그제야 파라솔을 펼치며 정히 엽흐로 바루선다。

『사람 따라 다른지 몰라두 알아노면 보기보단 순한게 남자란 생각도 나』

『너이 그언 순해보지도 안턴데? 네 조종술이 흉한게지?』

『흥!하지 안으면 뭐 약혼시대부터 휘휘려 어떠하게』

『결혼해두 그러치뭐?결혼햇다군 휘둘리란법 잇니?』

『그래두 모두 봐야 녀잔 혼인전이 제일갓더라 달려지니깐』

『달려지다니?』

『연애시댄 이리지둘 안니?이쪽이 청하지도 안는걸 아주 자신해서 뭐 당신은 내 여왕이니 내 천사니하구……』

『아이 웃어라……그래?』

『그러케 설설 기다가두 혼인한담엔 여간 아니더라 모두』

『그럼 설설 기지 안는단 말이지?』

『그럼 설설 기긴커녕 여왕은 뚝 떠러저 신하가 되지、신하던 저인 쑥 올라안저 폭군이 되지、그러니까 걱정이 진』

『거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구나! 하하……』

하고 동옥은 맑은 웃음소리를 펑펑한 파라솔 속에 텃드렷다。

『그럼 누가 그까짓 혼인하니?』

그리고 하엿다。

『그러타구 어떠케 혼인을 안 허니?』

『아、여왕시대로만 연장식히면 고만 안야? 연앤 꼭 결혼해야 하나?』

『………』

『또 너이도 인제 결혼만하면 그러케 군신(君臣)의 지위가 역전(逆轉)될걸 각오하니?』

『글세……』

정히는 웃기만한다。

五十餘洞民大擧 墳墓發掘로騷動
묘를섯기때문에비가안이온다고 木浦署서主謀者取調

【木浦】요사이 지방에는 북조선에 미증유의수해를 전하며 중부의 대풍을구가하는반면에 남조선특히 그중에도 전남무안군일대(務安郡一帶)에는 미증유의 한발로인하야 흉년은 물론이요 벌서 식수까지를 우려하게되엿슴으로 일반인심은 자못흉흉하다고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로인하야 항간에는 무지와미신이 만히도라 그지방의 주산(主山)에 묘(墓)를썻기때문에 비가오지안는다고하야 불문곡직 하고 무지한 동민들은 동원하야 정당한 인가미려서쓴 묘를 파서 공동묘지에 이장하는등의 행동을하야 마참내 경찰의 손까지 빼치게된 사실과——무안군면성면 상절리박덕인(務安郡綿城面商節里朴德仁)이는 명지이십삼번동리 보평산(寶平山)에 자기부모를 한장하엿든바 그로인하야 금년과가튼 한발이게속한다하야 동면오십여명이 지난일일 전기 묘를 발굴하야공동묘지에 이장하여 소동을이르켯슴으로 목포서 안등사법주임(安藤司法主任)이현장에 출장하엿든바 전기동민들은 또다시소동을이르켯슴으로 그주모자를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府營뻐스또傷人

【平壤】사고잘이르키기로 유명한 평양부영『뻐스』가 또다시인을 깔고넘어가 비사의중상을가햇다 평양부내 약송정(若松町)이번지 대도(大島)가며(ᄏ)가 국방헌금을 모집하다가 사일오후세시삼십분경 집으로 도라가든중 부내 죽원정(竹園町)길촌신문관(吉村新聞舖)압흘통행하든중 평양역전을 출발하여질주하든 운전수 김의곤(金義坤)(ᄋ)이 조종하고 차장정애전(鄭愛全)(ᄂ)이 동승한 부영제륙호『뻐스』가 깔고넘어가는 바람에 외인편다리와 외인편쇄골이 부러지고 외인편손에 타박상을바다 혼도된것을 도립의원에 떠메여다가응급수당을가하고잇스나 원체중상이기때문에생명이위독하며 순조로 치료가된대도 이개월이상을요할모양이다

寶城郡內三大橋 工事入札決定

【光州】전라남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오개년계획으로 총공비칠백삼십사만칠천원을드려 중소하천공사를한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그에따라 도내수해로인한도로 교량(道路橋梁)등도 복구공사하려고 수일전에 십이개소의 외공사를 전남도회계과에서 입찰결정하여고 또다시칠일에 삼개소의 공사를 입찰하엿는데 공사지명은 다음과갓다한다

▲寶城郡福田面桂山里 暗渠災害復舊工事費 二、〇〇〇圓 ▲同郡同面檢亭橋 復舊工事費 二、七〇〇圓 ▲同郡同面築川橋石垣修繕工事費 二六〇圓

光州府內染病猖獗 避病舍는超滿員
府當局에서對策講究

【光州】매년하절이 닥치면 악질이 류행하야 도회인의 고통으로되여잇는데광주부내에도 최근에 장질부사를 위시로 이질홍역등 각종전염병이 성행하야 광주도립의원에 전염병으로 입원한환자만이 어십여명이며 동피병사(避病舍)에는 정원십명에 현재 입원환자십이명이 드러잇서 금후로는 신환자가 잇드라도 입원할수업는 형편이되여 부당국에서도 대책을 강구중이며 일반은 퍽이나 불안중에잇다한다

測候所設置認可申請

【海州】황해도당국에서는 금변 도산규사업의 하나인 측후소(測候所)설치공사시행인가를 방금총독부당국에 신청중이다 그리하야 인가되는대로 곳기공하리라는데 건물부지기계급인건비(機械及人件費)등 총경비는 사만 구백칠십삼원의 다액에달하리라한다

地方人事

▲田中傳次郞(平壤署長)新任人事次平壤支局來訪 ▲岡野義人氏(惠山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社惠山支局來訪 ▲安原靜雄氏(惠山警察署警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惠山支局來訪

雩時에空前水亂 浸水家屋三百戶
流失된家屋만도三十餘戶로 被害總額이十萬圓

【碧潼】평북 벽동우시(碧潼雩時)에 충만강(忠滿江)이 범람하야 시가지가 침수되엿다함은 이미 보도되엿거니와 이제 그자세한피해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이일아츰 여섯시 아츰식이 채 깨기도전 뜻아니한 수마(其實은上流增水)가 엄습하야 무엇하나 운반할새도업시 삽시간에 삼백여호 시가지는 수국화하야 오직 부르짓는 소래와 통곡하는 소리뿐으로 실로 생지옥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현상을 일우엇다고한다 리재민은 무려 천여명으로 그들은 공회당레배당 면사무소등에 수용하고 당지 면사무소에서 주먹밥을 공급하고잇다는데 저즌옷을 그대로입고 떨며잇서 실로 목불인견이다 그중에 가옥을 루실한 삼십호 재민은 전부가 극빈자이여서 방금 먹곳이업스니 그들의 정경은 실로 참담막심하다고 그피해는 대략 다음과갓다

沈水家屋 一百七十戶 流失家屋 三十戶 穀物被害(倉庫에入庫한것)二萬圓 家畜其外 約二千圓 以上 約十萬圓에 달한다고한다(本報碧潼支局員調査)

【雩時】지난이일오전다섯시부터동정오까지에 벽동군초산군게인충만강상류지방 호우로 인하야 심역미나중수되여 연안농작물은 물론 가축과인명에도 피해가막대한모양이며 특히 우시지방은 삼백호나 침수되엿고 류실이삼십여호라하며 기타피해가 막대하야 방금리재민은 당지면사무소 공회당레배당등에 수용하고 우시면에서 주먹밥을재공하여 연명중이라한다

災難地를慰問
碧潼各團體에서

벽동 참변에소식을 들은 벽동읍내 각단체와 본보 벽동지국 에서는 현장 재민을 위문키 위하야 지난 삼일 퍼붓는 비를 마지가며 현장에 당도하야 위문을 하고 협성회(協成會)회장 김상호(金相浩)소방조조두 김명하(消防組頭金明河)도회의원차두환(道會議員車斗煥)제씨는 금일봉식을 위문금으로내여 일반 시민은감사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東海에鱶群橫行依然 刺網에被害甚大
정어리잡이도각금움질

【鏡城】정어리근거지 함북연안에는 본격적정어리 출회기에이르럿는데 때를따라 밀려드는상어(鱶)떼가 요사히 한참활행하는판에바다가운데 처노흔그물(網)은성한곳이업시 상하게되여 부득이유망한온어업도 중지하고잇다한다

濱 南光祐 野口田中區長四人 總務 林祐永 源山 消防部 李學淳 藤井福七 燈火管制部 石田 金然澤 消防部 金在芳 朴金龍 救護部 李濟龍 崔日聖 交通部 松尾 金昌成

庫底防空團組織

【通川】북지사변이 돌발하자전국방방곡곡에서 국방의소리가놉하가는이때 통천군 고저에서는 지난삼일오전열시부터 고저수산조합(庫底水産組合)에서 각관공서원및 시민유지 사십여명이모이여 방공단을 조직하엿다하며 불일내로 발단식도 거행한다는데당선된 임원은 다음과갓다

團長金澤林 副團長李殷輯 同 城市 顧問 郡守 和氣 田夏富 金鳳濟 大谷孔亮 理事 各部長及副部長 幹事 高橋倉田 塙田太田 高砥

國防熱과獻金

▲平澤 비상시 국방열이날로노퍼진 진위군내각인사들은매일평택경찰서 또는 진위군청을방문하고 국방헌금을 의뢰한다는데 씨명과금액은다음과갓다

氏名及金額 ▲三百圓 李成烈▲三十圓 徐相學▲五十圓 金炯泰▲六圓金漸基▲五圓五十錢 金榮里金弘立▲十圓 振興學院長李敏恒▲五圓四錢平澤公普六年生一同▲十圓 李敏熙▲五圓佛人包萬壽▲十圓 牛谷靑年部一同▲五圓 朴炳武▲十圓 平澤禮拜堂李德薰▲四圓 平澤理髮業李春應

▲安州 안주천주교 신자일동은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본교회장림해관(林海觀)씨이하 여러교도가 푼푼히 모은돈삼십원을 불일간 당지경찰서에국방비로헌금하리라한다

▲三千浦 북지시국이 날로험악함에따라 일반의 애국열은 극히 고조되여 각계에서 국방금과 위문금이 매일 답지하고잇는바 지난팔일 하로동안 삼천포주재소(三千浦駐在所)에 방금과 위문금을 헌납한자들의 씨명을들면 다음과갓다

三百圓愛國婦人會 十圓中華民國人梅敬淸外二人十六圓 鄭斗浩外三十一名 十圓五十錢龍江部落民 十九圓三十錢鳳凰洞民一同 二十一圓消防組 二圓五十錢動島簡易學校 三圓梨泰洞農共濟組合 十二圓二十一錢仙龜里有志一同

▲安州 지난이일까지에 안주경찰서(安州警察署)를 경유하야 헌납한국방헌금은 구십원이라는바 그씨명과금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尹良植十圓 ▲張基元五圓▲文京淳九圓 ▲金光浩 安國鎭 金禮生 梁德淸各五圓 安承鎬 洪命烈 鄭應瑛 金在麗 崔廷駿 魯景淵 李鍾基 金炳洽 金炳燮 李九洙 文夢杰 都一鎬 各三圓 洪乃洙 金南涉 各二圓 韓龍敏 裵允實 金學淳各一圓

商標 千年都賣 코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電話局二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讓店 格安讓ル御希望者ハ 本町四丁目一四八 宮島マデ 姜人デ出來ル化粧品洋業房歸國ノタメ急

男女 社員募集資格中等學校卒業程度以上(每日午後三時로五時까지本人來談) 彩業公論社(事務取扱鍾路三ノ二五 博愛堂藥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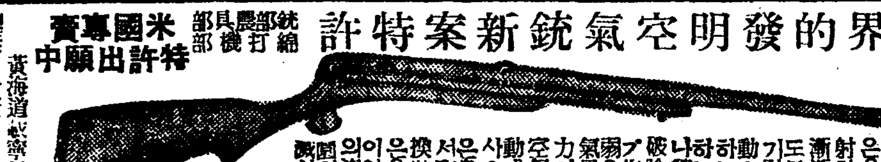
朝報案內

萬年筆眼鏡의仕入은當店에 良品廉賣 商報進呈 輸入萬年筆眼鏡卸 (K)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男女 淋疾 麥茸五淋錠 人蔘鹿茸强力殺菌劑等高貴藥洋漢近二十配合 說明書進呈 價二圓三圓七十錢 咸興府大和町三 朝鮮藥研究所

理化學用白金 白金 銀 金 福 株式会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銃部 打部 農具部 機部 型錄無料送呈請求 空氣銃 合資會社 利善工場 黃海道載寧邑 電話一〇九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可認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을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 京城府長沙町一九 泰昌工業所(原料商)
本社京販 電②本一五九七番

간장이야 「깃고유醬油」가第一이지요、그러기에 朝鮮家庭에서 가장好評을밧지요 지금까지못써보신宅에서는 꼭 한번써보시면 아실것입니다 (貴宅近處販賣店에서사주십시요) 御近所の販賣店にておお求め下さい キッコーマン醬油

(1) オリザニン은 脚氣의原因除去藥으로서 그治効並豫防効力의 顯著確實함은 多數實驗報文이立證하는바입니다。
(2) オリザニン은 脚氣의重症及中等症에는、普通藥用量의一倍半量의 量을數日間連服함이必要되며 內服不能又는衝心等의危險期에際하야는注射劑가適用되야、治効가나타남에따라普通藥用量或은그以下로減量해서 全快까지連用하는것이常法입니다。
(3) 脚氣의豫防에는 普通藥用量의 半量을連用해서 目的을達할수잇슴이알려저잇습니다。

オリザニン ビタミンBの始祖 鈴木博士帝國學士院受賞の發明品
內服用 (비타민B複合體)錠、末、液、엑키스、各種
注射用 (純비타민B結晶製品)普通品、三倍品、五倍品、十倍品、廿倍品及四十倍品各種잇슴
오리자닝은 脚氣以外 各種의醫治効用이有함
(詳細는說明書에잇슴 申込次第進呈)
製造發賣元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元山에不景氣繼續 數萬勞働者困境

經濟의大動脈인漁港極蕭條로 商街의悲鳴逐日漸高

【元山】 어항경기라는 특수경제하에서 움직이는 원산조선인경제계는 지금 수년래 처음보는 심각한 불경기의 와중에 빠저잇다。그리하야 상점의 매상고는 례년의 오할에불과하고 또회수가 전연어려워저서 수만흔 상공업자들의 비명은 이구석저구석에서 소사나오는데 그답의비명도 비명이지마는 그보다도일층 충폐에 사모치는 심각한 곤경에빠저잇는것은 가족을 합한수만에 각가운 로동계급이라고한다。

즉원산어항은 련속하는 흉어의여파로 몰락하는 어물조합을 이른바 이미 오래되엿고현재는 문자그대로 한산하여저서 부두에는 사람의그림자조차 차저볼수업게 되엿스며 따라서이 부두수에서 생활의 미천을 버리하고잇든 로동자들은 해산물어가들도 날마다 이 여름이 하로갓비 가기를 바라고잇든 현상이다

그리하야 수천의 로동자들은 일은 하지못하면서 함로(咸勞)에서 데여주는 쌀로서 겨우 련명하여가는동이니 이여름동안에 그들은 빗(借金)으로 사러가는 터이며 이 수천의 로동자에게 구매력이업스매 상점 음식점등을 중추로한 원산의 경제계는 말이아니된다고한다

그런데 원산의 대동맥 어항엔 문시만 펄펄날러서 수만흔 사람이 불경기를 부르짓고잇는 반면엔 여름철의 유명한 유원지고 소비지인 송도원에는 이와는 반대로 수년래 처음보는 은성을 일우고잇다

咸興競賣市場問題 또다시紛糾惹起

同情金額數問題가말성되여 府와"市場""漁業"兩會社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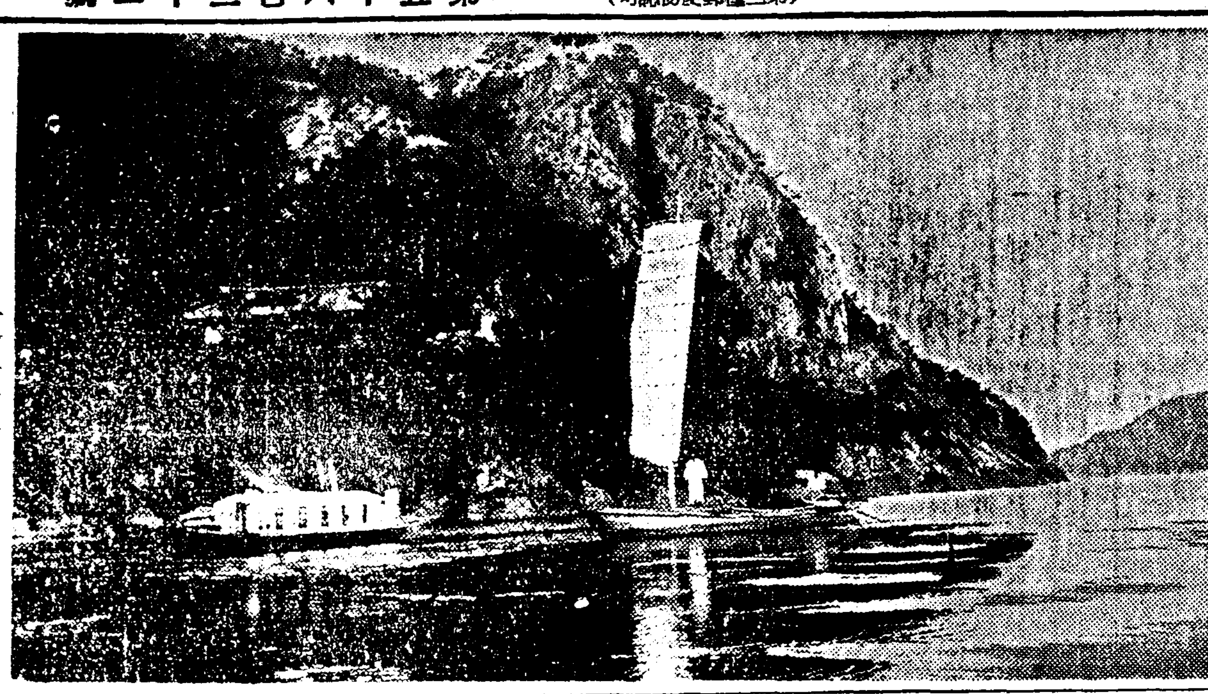
【咸興】 파란을 겪거오든 함흥부경영경매시장과 어채회사(漁菜會社)는 결국 부영으로 경정되엿는대 이제남긴문제를 이두대행회사에 대한 동정금(同情金)지출문제는 다시 부당국과회사와사이에 협정이되지 못하고분규를거듭하야주목을끌고잇다

즉 두회사의 동정금은부회(府會)에서 시장회사(市場會社)는칠천사백원 어채회사는 삼천칠백원 합일만일천원의 지출이 결의되야 두회사와 절충되엿는데 시장회사는 위선그금액으로 량해시켯스나 어채회사에서는 적다고 칠천원증액을 요구하얏다

그리하야 여러가지로 절충한끄테 부에서도 륙천원까지 지출할것을 표명하얏는대·어채회사에서는 끗끗내 칠천원을 고집하고잇스며 또한편으로는 의외로 일단량해하얏든 시장회사에서도 다시증액을 요구하야와서 금후 어느만큼한경도로부와 두회사사이에 타협을 보게될는지 전번부영론의 연장으로 다시금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

一段約定한市場側도 前言을反覆 府와正面衝突未免?

【咸興】 기보=함흥부의 대행회사인 어채회사(魚菜會社)와 시장회사(市場會社)의 동정금 문제는 의연부와의 사이에 협경을보지못하고 쌍방이 서로버티고잇든바 요지음에 이르러서는 일단 칠천사백원을밧고 중개업무를 행하지안켓다고 언명한시장회사에서 아연태도가 견화되여 그동정금을 다시반환하는동시 중개업무도 다시속행할터이라는의사를 가지고잇는듯 하기까지에 이르럿다고한다 이러케되면 부와 그회사사이는 필경정면충돌을 할것으로 더욱문제가 복규해갈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어채회사도 다시 동정금의증액을 요구하고잇는데 부당국으로서는 절대 듯지안흘태도를 가지고잇스며 오는구일 최후적타협을 하기로되엿는데 과연서로양보하야 타협을 지을는지이두회사와 부당국과의 사이의문제는 더욱〃데리케ー트〃하고잇다



落花岩

안해刺傷코 列車에自殺

【海州】 내외싸홈끄테 주머니칼로 안해를 찔러죽이고 렬차에 치어 자살을하여 그잘못을 청산한남편이잇다—

김천군고동면구읍리(金川郡古東面舊邑里) 사백이번지 광부송덕성(宋德成)(三二)은 지난칠월이십팔일 오후열한시경 술을먹고 집에도라와서 그의처 김옥단(金玉壇)(二七)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끄테 약세치되는 적은칼로 안해옥단의안면 기타수처를 찔러 중상을 입혓는데 그로인하야 이십구일오전한시에 절명되엿다

그리하야 금천서에서는범인을 수사하든중 이십구일오전한시반경 금천군계정역(鷄井驛)에서경성으로향하든 약오십미리되는선로지점에서 렬차에치어 자살한것이판명되엿다

애못낫는女子의犯罪

【平壤】 남편이 어린애못낫는다고하대하므로 어찌하든지 아이를나보겟다는 아름생각으로 딴남자와 관계를맷다가 남편의고소로 철창생활을하게된 그여자의 말로—

성천군통선면 안태리(成川郡通仙面安台里) 지봉상(池鳳祥)의 처 김길화(金吉花)는 십오년전에 지와결혼한이래 자미나는생활을 계속해와스나 잇서야만할 아이를 낫치못하는까닭에 항상 집안에는 암운이 떠돌고 잇는중 마츰내 파탄을 이르키여 싸홈이 날로 속개되자 깁은 낙면의 참마음을 리해하고 어찌하든지 어린애를 나서 남편에게 이러타는듯시 보혀주겟다고 결심한끄테 。금년 칠월일일 부터 동리한정호(韓貞浩)이란청년과 마음에는 업스나 일신하겟다는 일념에서로자며 불의의판계를매저오다가 필경엔 남편에게들켜 리면에파무친 눈물겨운 사정도 모르고평양지방법원에간통죄로 고소를제기하여 이래동법원 도광(稻光)판사주심 삼산(森山)검사립회로 심리중이든바 사일 간부에게 각각징역사개월의 판결언도를 나리엇다한다

小麥檢査가發端 商人과檢査員間亂鬪

翠野米穀集合檢事場의不祥事

【翠野】 곡물집합검사(穀物檢査)장소문제로 검사물을 상회나재조활식하야 상인과검사원이 결국격투까지 연출한사건이잇다

지난이일 시내리기열(李起悅)정미소에서는 재래로 지정된검사장소인당지역전에 소맥을적재하고 검사신청을하엿든바 농업창고(農倉)이외에는 검사를거절함으로 전기리씨는종래부터 검사소와 곡물협회의 지정장소인것을 말하고겨우검사를밧기는 햇스나 결국재조(再造)명령을밧고 다음날인삼일에도 또재조를명함으로 지난사일에는 극력건조개량하야 검사를바덧스나 역시건조불량이라고 연삼회식이나 재조를 명함으로리씨는 상당한 검사품인것을고의로 재조식히는것인즉 인천에가서 검사를맛처야겟다고 하자 리씨와검사원중소(蕭集)씨는 충돌끄테격투극까지 연출하엿다한다 그리고 지난오일곡물협회원들은 곡물검사소를 방문하고 검사장소를 농업창고일개소로만 정함은 일반상인의 불편뿐아니라 매석에 십삼전씩의 공연한운임은 생산대중에부담되여 불소한손해인즉 농업창고와 역전두개소로하자고 말하엿스나 검사소에서는 농업창고이외에는 절대불응함으로 그날오후구시 리기열(李起悅)씨 방에서 곡물협회림시총회를 소집하고 검사장소를 이개소에 둘것에대하야 대책을강구하엿다한다

穀物協會長 李起悅氏談

이미역전이 검사장소로결정되여잇슴에불구하고 농업창고외에는 검사를행치안는다함은 부당합니다 각지와매매한밀을 창고에갓다 검사를밧고 다시역으로 수송하랴면 매석에대하야 공비십삼전식이 더소비되니 즉생산자가손해를보게될뿐 아니라 상인들은 시간관계로 도저히불가능한것임으로 종전대로 농창과역전 두곳에서검사를하도록 운동을하겟습니다 운운

雄基競馬終幕 馬券賣高十四萬圓

【淸津】 함흥과 청진에 뒤이어 개최된 웅기경마회(雄基競馬會)는 지난삼일로서 전후륙일간의 경마를 마첫다는바 그동안 마권의매상고가 무려 십사만이천팔백오십오원에 달하야 관계자의 예상을깨트리고 대성황리에 종막하얏다한다

紛糾끄테解散된 産組總會再開

【鎭南浦】 조합내부화청과 조합장오모(吳某)에 대한제명처분문제로 분규를거듭하여오든진남포 산업조합(産業組合)은 칠월삼십일일 진남포공회당에서 조합원 칠백여명이 출석하여총회를 개최하엿스나 처음부터끗까지 조합원들은 극도로흥분되여 다섯가지의안중 한가지도귀결을 짓지못하고 최후에는 장내가수라장으로 화하게되여 경찰의제재로 해산되고말엇든바오는십구일경 다시총회를 소집키로되엿다고함으로 또다시 어떤 커다란 충돌의세가 전개될런지 예우주목 되는바라고한다

營業廢止코 罹災民救護

北鎭水害美談

【北鎭】 북진홍수재변이 나흔 미담하나—뜻밧게 대홍수로인하야 집과가구를모조리 류실당하고알몸만남은 리재민을 시내료리옥고려관(料理屋高麗館)에서는 지난이、삼일간 식당부(食堂部)의영업을 폐지하고 사십여명에게밥과침실까지 내여주엇다하여 일반은 그의뜨거운동정심에 감격하여마지안는다한다

選擧違反事件控訴

【新義州】 귀성선출평북도의원 장항선(張恒善)에 대한선거위반사건에 대하야는 그동안정주검사국에서 략식으로 판거지 장항선외오명에게각각벌금의 형에처하얏다함은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후장항선은 정식재판을 요구하얏든바 지난달이십구일 정식재판의 결과 또다시 벌금형을 밧게되엿스므로신의주박창하(朴昌夏)씨를 변호인으로하야 수일전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한다

六名一網打盡

野外서賭博開催

【大邱】 날이더우니 노름(賭博)도야외로!—지난칠일 오전한시이십분경 대구부봉산정대구고등보통학교엽숨바테서 노름군여섯사람이둘러안저 화투를치다가 마츰지나가던 대구서원에게 발견되여 대격투를연출한끄테 체포되엿는데 그들은무더운 여름밤에 실내에서는 도박을개장할수업슴으로 그와가티 들판에서시작한것이라하며 모다채소와실과행상들이라한다

턱업는地料와집세 一躍倍以上暴騰

羅南의細民層은운다

【羅南】 생산기관이업서 순소비도시로 한산하기짝이업는 라남이 무슨닭으로 집세와 지료(地料)만 날개돗처 날뛰는지모르겟다는 불평이 일반근로층에서노파가고잇다 즉 얼마전까지 평당사오전하든 지료가 지금은엇시 배이상 삼배나 폭등하야 십전으로부터 십이삼전을 부르고잇다 이는그동안 지방이발전되엿다거나 특별한 변동이잇서보이지도안는데 공연한 북선경기에 뛰여오른것이다 하며주택난의 심각으로 이에따르는집세의폭등도 도저히 견딀수업는 고통거리가되여 가난한사람들을 울리고잇다한다

電線竊取犯

【淸津】 청진방송국(放送局)이세상에 나와서 처음만나는 도적—수입전 방송이끗나밤 어두운 천지를 헤메이고 차저간도적이잇서 방송국안에잇는 전선뭉치를 가저갓다는데 이뭉치가 가격으로는 일백오십원 무게로부터 이십사오관에 달한다 함으로 아무리기운이 세인자로거니 일백오십근을 메고가는데는 힘드럿스리라하야 도적마즌집에 화재꺼리를 만들어주고잇다한다

말성된黑林江水利

長津江水力電氣會社에서물專用하는닷에 五百町步畓이用水不足으로廢耕狀態라고

咸州네面民이咸南道에陳情

【咸興】 함주군하기천면 송당서상통 상통(下岐川面松堂西上東井 上通)의 네면주민들은 장진강수전회사에서 흑림강(黑林江)의 수리를 사용함으로 오백여정보 논에 용수가 부족되야 곤경에 잇다는것을 바재렬(朴在烈)등 네명을 대표로하야 남도에 그대책을 진정하야왓다 그내용을보면 수전회사에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수도안으로물이들어가면 공사할수업다고 흑림강의물을 모다 강바그로 퇴수(退水)하야 버렷슴으로 흑림강은 물이흘러내리지안허서 전답에 관개할수 업다는것과 또한 이지방의 관개천인 동흥리(東興里)직동천(直洞川)을 가로막어서 장진강에 주입식힐계획을 하고잇는데 이러케되면 흑림강연안의 전답에는 관개할길이 업게된다는것인데 도당국에서 이것을 중대시하고 곳 기천면장에게 그진상을 조사시키엇는바 그의보명도 역시 주민들의 말한바 사실과가틈으로근일중 이에대한대책을 강구케될것이라고한다

輻湊하는國防獻金

▲楊口 준전시체제에서전시체제로 긴장에박차를 가하는요지음 강원도양구(楊口)에서는 지난사일 오후세시경부터 양구군청회의실내에서 국방의회설립총회를 개최한바 오는십오일에발회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한후 역원을 선정하고 동오시경무사페회하엿다한다 역원씨명 ▲會長 崔駿鐘 ▲副會長 金學洙 島田藏三郞 ▲顧問 李瑢煥外二人以下省略

▲麟蹄 본보 린제지국에서는 지난팔월륙일 국방비로좌와여히 린제경찰서에기탁하얏다 ▲鄕約亭 二圓五十錢 ▲白南奎 二圓五十錢

▲淸津 청진부내신암동(新岩洞)김성화(金成和)씨는 지난사일에 청진헌병분주소(淸津憲兵分駐所)에 소장을차저 국방헌금으로 금이백원을헌금하고 갓다한다

▲靈武 북지사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국방열은 날이갈수록 높하감에따라 함남북청군신포읍륙대(北靑郡新浦邑六臺)에서도 지난이일과 륙일에 당지주민들로부터 소관경찰관주재소에 국방헌금으로 가저온것이 오백삼십사원팔십전에 달하는바 곳 북청본서로 송금수속을 하엿스며 계속하여 사방으로서답지하는바 취급하는당국으로서는 일반주민의 열성에 감격함을마지안는바이며 헌금한인사는 다음과갓다더라

第一回分 八月二日扱 金珍基百圓 金德謙六十圓 湯宗聖 金允謙 徐斗麟各五十圓 朱義淑四十圓 金寅煥 李龍錫 各二十圓 朝鮮漁業會社六臺出張所員一同 二十一圓七十錢 振興會靑年部十圓 權貞順女史十圓 六臺婦女講習會員一同 七圓九十五錢 金英基五圓 安廷屹 李鳳南 各一圓 韓龍鉉 五十錢 計 四四七、一五

第二回分 八月六日扱 六臺飮食店組合員一同 二十六圓 高鶴遵 二十圓 新浦六臺東里二區一同 十圓 庄內部落民一同 十圓 外四十三人分 計八七、六五 累計五三四、八〇

▲明月溝 북지사변이돌발한이후 전선에서 고생하는장병들의고초를 생각하고 아모리어린학생들일지라도 방학동안을그저보낼수가업다고하야 명월구해성학교(海星學校) 남녀생도들은 사흘동안 가두에나서서 빵을팔아서 어든돈 이십오원오십전을 국방헌금으로 헌병분주소에밧첫다고한다 그리고 지난달삼십일이후 명월구 조선인민회에 답지한 국방헌금자 배명과 금액은 다음과갓다

三十圓 金政夏 二十圓 姜成烈 滿昌商店 十圓式 申泰皓 張相河 兪亨涉 興業商會 孔元俊 裴龍彬 崔鴻北 廣濟商店 天主敎會 金濟洙 崔奎商 六圓 金必擧 五圓式 [illegible] 根 元興商店 龍井合麵屋 三 成金物店 三圓式 李順浩 和

▲義州 북지사변이 돌발한이래 국방헌납열이 각지에 팽창하고잇는이때 재녕에서도 벌서일천사백원이 재녕서에 기탁되엿스며 개중에도 환성운송점(丸成運送店)에서 일급 칠십전에 불과한 로임으로 품팔리하는 로동자들이 십원금을 헌납하얏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그헌납자는 아래와갓다 朴周殷 崔東鮮 閔丙德 各百圓 鄭濟裕 崎山長良各二百圓 棚マキ 百五十圓 荏田留吉 [illegible] 張景鎬百圓 新換浦在留支那人一同

信商會 餅一商店 三圓式 張斗吉 嚴能彦 朴敞國 金昌國 金元俊 二圓式遊樂館 金元基 共信商店 千歲樓 慶安商店 周述文 松林商店 嚴敬學 千八守 海南商店 時代洋服店 一圓式 金鳳益 安基鉉 金鳳星

同十圓 朝鐵自動車部 十三圓 李泰十圓 自轉車組合 十五圓 林濟根十圓 金致明十圓 丸星運送店二十圓 丸星運送店勞働者十圓 林泉里與鳳會二十圓 林容煥外八人 十六圓五十八錢

▲平壤 평양부내 만수보통학교(萬壽普校)서미회에서는 일전에 총회를소집하고 회원팔백칠십명이 이십전 역원사십명이 이원식기부를하여 십일원까지 전부모아 국방、구호비로 헌금하기로되엿다

▲鎭南浦 평남도회의원진남포 리종섭(李鍾燮)씨는 금번삼천원을 희사하여 고사기관총(高射機關銃)일좌를 기부키로되엿다고하며 항좌음악부(港座音樂部)일동도 오십오원을 국방헌금으로 내엿다고한다

長篇小說 어머니 【116】

李箕永作 鄭玄雄畵

第四、女子篇

一、흘러간오년(三)

인숙은 그책을 다보고 나후에、시침이를 뚝따고 아들에게는 그대로 잇섯다。그뒤로는날마다 책상을 한두차례식 뒤저보앗다。몃칠 만큼식 그의 책장에는 딴책이 꼬치엇다。그럴때마다 그는 아들이 학교에간사이에 그책을몰래 읽어보앗다。차차 읽어갈수록 그는 대강의 미를 포착할수잇섯다。이와가금 단의 과실을따먹고、지혜를밝혀 한것이 이와가튼것은 아니엿든가?

그가처음 읽어본책은 그 언제인가、여자 청년회간부가 강연하든말과 근사하엿다。그는생각의 실마리를 풀려보앗다。—원시적 인간은、참으로 동물에서 분리한것인가?인간은과실을 따먹고 색기동물을 잡어먹기 위해서 유치한 연장을만들기 시작햇다한다。참으로 그래서 인간은 몃천년동안 연장을 쓰기때문에두손은 인간의손으로 발달 하고、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가리네발로 기지안코 두발로 것게되는동시에 끔직이 꼿꼿하게되엿든가?……연장을 만들고 연장을 사용해가며 사러온 인간의 로동과 사회적 섭생의 장구한 발달은 인간의 육체적 용모에까지 변화를 이르켜서 인류(人類)가되고 마침내 오늘날 인간으로진화하엿다하니 과연 그러것인가? 그러면 구약창세기는 거짓말인가?……

로동은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엿슬뿐아니라 실로 인간그를 기까지도 만드러 낸것이라하니 그러면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함인가?……

그래서 원시인의 원지적 기술은 극히 유치하나마 석기시대에서 금속시대로 옮겨가는중에 채집(採集)과 수렵(狩獵)으로만살든 원시경제(原始經濟)는 농업과 목축으로 발달하는 생산경제(生産經濟)로 변하엿다하며 종교는 인간의 무력을 느끼는자기의 목적을 자연에게다 도달하라는 욕망으로 부터 생기엿다는것이 아닌가?……。

덕근이가 사회변적인 어느해 가을이엿다。인숙은 이즈음에 덕근이의 행동이 수상한것을발견하엿다。그는 저녁에는 줌처럼 나가지안엇는데、어느때는 밤중도지나서 새벽녘에 드러오군 한다。

그래、그는 모친이 이웃집으로 마실을간동안에다서、하루는조용히 아들을 불러안치고 무러보앗다。

『너、요새어딀를 나단이니?』

『동무한테요!』

덕근이는 그때예사로 대답한다。

『동무가 누구냐?공부는 하지안쿠 뭐하러 밤늣도록 단니는게냐?』

모친은 근심스러운듯이 아들을 노려보앗다。

『공부 하려가지、누가、뭘…』

『공부하려가면 책보도 안가지고 단여?』

『동무집에 잇는것을 뭐하러 귀찬케 또가지고 가요!』

하고 덕근이는 시침을 뚝따며 우섯다。인숙이는 웃는 아들을 한참 쏘아보앗다。그의 입술은 가늘게 경련을 이르킨다。

『뭐?……너는 나를 속이지 안니?』

인숙의 목소리는 약간 로기를 띄우고 떨리여나왓다。

『속이긴 무얼 속여요! 어머니두 참……』

덕근이는 어이업는듯이 모친의 시선을 피하며 책상아프로 비켜안는다。그러나 그의 내색은 확실히 달러진것갓다。

『정말이냐?……아니 그럼 증거를 대야겟니!』

별안간 인숙이는 책꼬지아프로 우루루 달려가서 맨미트로 달린 설합에 너흔 조고만 책한권을 끄집어 내보인다。

『아니면 무에냐? 이책은 무에냐』

하고 그는 아들의 러아프로 박착 그것을 드리민다。

『그것도 공부하는 책이 아니우!』

덕근이는 기상 들켯스니 할수업다는듯이 도리혀 냉정한태도를 강작해보일수 밧게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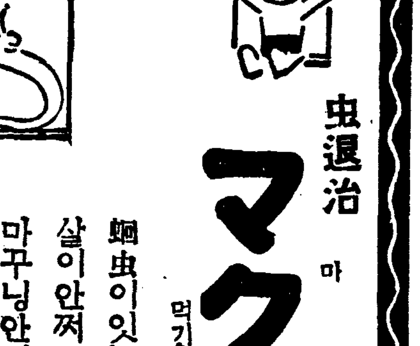
『그러기에 누가 공부가 안이라니!네가 딴공부를 하더라도 부모를 속이는것이 잘못이란말이다』

『…………』

『너는 그런책을 어미가못보게 할줄알고 몰내 속이려 들지마는 나는 네가 진심으로 하는일이라면 만류하지도 안켓다!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소학생은 범서 면하지 안엇느냐? 그만햇스면 인젠분별이 나설만한때도돼서 네앞길을 차저나갈만하지 안켓느냐? 옛날에도 사내가 열다섯살이면 호패를 찻다는것이다 설령 네가 지금하는 공부가올치못하다거로、네가 부모를기이고합적에는 그만큼 고혹한것이 잇는 까닭인즉、그러타면 열에서 간섭을 하기로 무슨소용이 잇겟늬。더욱 부모자식사이에 바람을 살분이나냐? 그러니、너는 네가올타고 생각하는 일은 맘대로 해도조타!다만 이어미를 속이는것이……어미는 그것이 제일서운하다!어미는 참으로 누구를바라고 살것니? 오직 너하나를 의지하고 사는데、너까지 나를 속이니……』

인숙은 끄러오르는 격정에 목이메여엿다。덕근이는 의외의 모친의말에、너무도 감동해서 다만 공손히 머리를 숙일뿐이엿다。

平壤名産 在來式優等燒酒 漢湖燒酒
地方注文도大歡迎합니다
平壤府船橋里九十番地 漢湖商會酒造場



蛔虫退治 마쿠닌 マクニン
먹기쉽고・잘듯고・害가업다
蛔虫이잇는애기는 살이안쩌
마쿠닌안먹는애는 살이안쩌
錠劑 大人一日量十錠 .30 .75 1.35
ゼリ .20 .50 1.00 2.00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祝哈爾濱支局發展

哈爾濱道裡水道街 Ⓜ 北滿產業組合 一般庶務電話二二二九五番 精米工場電話六八一四番

哈爾濱西馬家溝文昌街一三八 オリエンタルビール會社 電話六四四二番 金鼎九

哈爾濱道裡地段街(康德ビル) 板谷生命哈爾濱出張所

哈爾濱道外新站街一三號 滿洲商中和商會支店 電話二九六四番 支店長 金春鎬 專務役 申仁湜

書畫家 金京泉(月潭)

哈爾濱 金一元

哈爾濱石頭道街三一號 趙光吳 電話七二一七番

哈爾濱道外承德街一一〇 慈惠醫院 院長 劉宗演

哈爾濱八站南馬路 和源泰精米所

哈爾濱斜紋街四〇號 韓光淑

哈爾濱道裡石頭道街 李永春

哈爾濱北安街一一九 黃弼醫院 電話三六四八番 院長 黃[illegible]

哈爾濱道裡透籠街三號 日乃出旅館 主 張永禮

哈爾濱道裡北市場 東協商店 主 李東鎬

哈爾濱道裡買賣街 益泰號商店 電話六一五二番

哈爾濱八站南馬路一八 哈爾濱金融會 電話四一八三番

哈爾濱道外承德街 平壤旅館 主 朴元珍

哈爾濱純化街八五號 北滿醫院 電話九・二二四一番 院長 李[illegible]

哈爾濱道裡桃町 金賢德

哈爾濱馬家溝阿什阿街六 岩本醫院 電話七五四六番 院長 [illegible]

哈爾濱道外承德街 朴明鎭 電話六三五九番

哈爾濱道裡田地街一二號 朝鮮旅館 電話七〇六一番 主 吳永烈

哈爾濱道外景陽街一五〇 泰和堂藥房 主 孫秉武

哈爾濱八站許公路一〇八 諸機械農具 三省洋行 電話六八三一番

哈爾濱 安鳳梧 電話六一五六番

哈爾濱道外南勳街三七 永昌號 尹永三

哈爾濱斜紋二道街 우라지오食堂 電話六三六一番

哈爾濱道裡石頭道街 朝鮮冷麵屋 電話六三八一番

哈爾濱道外南六道街 朴南[illegible]